

국 어

해설위원: 기 미 진 교수

본 문제의 소유권 및 판권은 (주)윌비스고시학원에 있습니다. 무단복사 판매 시 저작권법에 의거 경고조치 없이 고발하여 민·형사상 책임을 지게 됩니다.

- 반드시 OMR카드에 성명,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하시기 바랍니다.
- OMR카드 작성시 컴퓨터용 사인펜으로 작성해주시기 바랍니다.

<총 평>

유형	문법/규범	비문학/독해	문학	어휘/한자
연도				
2019년	11(↑2)	2(↓1)	6(↑1)	1(↓2)
2018년	9	3	5	3

2019 서울시 9급 시험은 작년 서울시 시험에 비해 다소 어렵게 출제되었습니다. 따라서 시험장에서 수험생들의 체감 난도는 지난 국가직, 지방직 시험에 비해 높았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합격선은 80점 전후로 형성될 것으로 보입니다. 상단의 분석표와 같이 문제 유형별 출제비중은 문법/규범은 무려 2문제가 늘어난 11문제가 출제되어 서울시 시험의 특징을 여실히 보여주었습니다. 반면 비문학/독해는 1문제가 줄어들었고 문학은 1문제가 늘어났습니다. 어휘/한자 문제는 2문제가 줄어들어 1문제가 출제되었는데, 기존에 출제되었던 내용(속담, 한자성어, 한자어 나이)이 반복 출제되어, 어휘/한자 문제로 인한 변별력은 크지 않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다만 문학 등에서 생소한 유형의 문제들이 출제되어 문제 자체가 까다롭게 느껴졌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러나 수업 중에 강조했던 기본 개념을 확실히 이해하고 있었다면 정답이 '두둥실' 떠오르는 문제들이 많았습니다. 결과적으로 국어의 경우 이론 수업을 충실히 듣고 기출문제와 기출 변형 문제풀이를 통해 꾸준히 훈련을 한 수험생들의 경우 고득점을 획득할 수 있었습니다.

앞으로의 시험에 대한 대비는 다음과 같이 하시기 바랍니다.

- 문법/규범의 경우에는 기본 이론에 충실하되 이번 서울시 9급 수준보다 조금 어려운 기출 변형 문제로 꾸준히 문제풀이 연습을 합니다.
- 비문학/독해의 경우에는 9급뿐만 아니라 7급 문제까지 문제 유형별로 나누어 매일 2~3문제씩 풀고 감각을 유지하도록 합니다.
- 문학의 경우 고어와 한자로 해석이 어려운 고전시가들은 매일 2~3문제씩 풀고 해당 작품에 대한 현대어 풀이 및 분석 내용을 교재나 포털 사이트를 이용해 평소에 미리 접해두면 시험장에서 당황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서울시의 경우 지식형 문제의 출제 비중이 높으므로 꼼꼼하게 작품을 공부할 필요가 있습니다.
- 어휘/한자의 경우에는 암기만이 우리의 살길이므로 매일 30분씩(그 이상은 추천하지 않습니다) 시간을 할당하여 기출 어휘/한자를 중심으로 암기해 나가도록 합니다. 단순 암기는 머릿속에 남지 않으므로 매번 새로운 자극을 받으면서 암기할 수 있도록 시간, 장소, 분량, 암기 방식을 바꿔 가며 여러분의 뇌가 신선한 자극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험생 여러분! 그동안 고생 많으셨습니다.

이제 이번 시험 결과는 잊고 담대하게 2019년 시험에 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2019. 6. 16.
기미진 올림

★ 기미진 선생님과 소통하기

네이버, 유튜브에서 [기미진 기특한 국어]를 검색하세요.

- 네이버 카페: cafe.naver.com/pskorean
- 네이버 블로그: blog.naver.com/edu_korean_edu
- 유튜브 채널:youtu.be/0ORfvstCC6g

1. 밑줄 친 부분의 문장 성분이 다른 하나는?

- ① 그는 밥도 안 먹고 일만 한다.
- ② 몸은 아파도 마음만은 날아갈 것 같다.
- ③ 그는 그녀에게 물만 주었다.
- ④ 고향의 사투리까지 싫어할 이유는 없었다.

[문제 분석]

출제 영역 || 문장 성분의 구별

출제 빈도 || ★★

정답 || ②

[문제 해설]

목적어는 서술어의 동작 대상이 되는 문장 성분으로 목적격 조사인 '을/를' 또는 보조사가 붙습니다. 목적격 조사가 생략된 채 체언만 있는 경우 목적격 조사를 붙여 보거나, 보조사만 있는 경우 보조사를 목적격 조사로 바꾸어보면 목적어를 쉽게 변별할 수 있습니다.

- ① [X] '도'는 보조사이므로 목적격 조사 '을'을 써서 '밥을 안 먹고'라고 바꾸어도 문장이 성립합니다. 따라서 '밥도'는 목적어입니다.
- ② [O] '만'은 보조사 '만'과 '은'이 함께 쓰인 것입니다. 목적격 조사 '을'을 써서 '마음을 날아갈 것 같다'로 바꾸는 경우 문장이 성립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목적어가 아닙니다. 주격 조사 '이'를 써서 '마음이 날아갈 것 같다'로 바꾸는 경우 문장이 성립합니다. 따라서 '마음만'은 '날아갈 것 같다'의 주어입니다.
- ③ [X] '만'은 보조사이므로 목적격 조사 '을'을 써서 '물을 주었다'라고 바꾸어도 문장이 성립합니다. 따라서 '물만'은 목적어입니다.
- ④ [X] '까지'는 보조사이므로 목적격 조사 '를'을 써서 '사투리를 싫어할 이유는 없었다'라고 바꾸어도 문장이 성립합니다. 따라서 '사투리까지'는 목적어입니다.

2. 한글 맞춤법에 따라 바르게 표기된 것만 나열한 것은?

- ① 새까맣다 - 싯퍼렇다 - 셋노랑다
- ② 시뻘겇다 - 시허엇다 - 싯누렇다
- ③ 새퍼렇다 - 새빨갳다 - 셋노랑다
- ④ 시하얇다 - 시꺼멓다 - 싯누렇다

[문제 분석]

출제 영역 || 합성어 및 접두사가 붙은 말

출제 빈도 || ★

정답 || ②

[문제 해설]

접두사 '새-/시-', '셋-/싯-'은 뒤에 오는 말에 따라 구별됩니다. 된소리, 거센소리, 'ㅎ' 앞에는 '새-/시-'가, 유성음 앞에는 '셋-/싯-'이 결합합니다. 이 중 '새-', '셋-'은 뒷말이 양성 모음일 때, '시-', '싯-'은 뒷말이 음성 모음일 때 결합합니다.

새-	된소리, 거센소리, 'ㅎ' 앞	양성 모음 앞
시-		음성 모음 앞
셋-	유성음 앞	양성 모음 앞
싯-		음성 모음 앞

- ① [X] 싯퍼렇다(×) → 시퍼렇다(○): 어두음이 된소리나 거센소리 또는 'ㅎ'이고 첫음절의 모음이 음성 모음 'ㄱ'이므로 '시-'가 와야 합니다.
- ② [O] 바르게 표기되었습니다. '매우 짙고 선명하게'의 뜻을 더하는 접두사 '시-'는 어두음이 된소리나 거센소리 또는 'ㅎ'이고 첫음절의 모음이 음성 모음인 경우 그 앞에 붙으므로 '시뻘겇다, 시허엇다'는 바른 표기입니다. '싯-'은 어두음이 유성음이고 첫음절의 모음이 음성 모음인 경우 그 앞에 붙으므로 '싯누렇다' 역시 바른 표기입니다.
- ③ [X] 새퍼렇다(×) → 시퍼렇다(○): 어두음이 된소리나 거센소리 또는 'ㅎ'이고 첫음절의 모음이 음성 모음 'ㄱ'이므로 '시-'가 와야 합니다.
- ④ [X] 시하얇다(×) → 새하얇다(○): 어두음이 된소리나 거센소리 또는 'ㅎ'이고 첫음절의 모음이 양성 모음 'ㅏ'이므로 '새-'가 와야 합니다.

3. <보기>는 시의 일부분이다. 시의 제목으로 가장 적절한 한자어는?

<보 기>

세상에는, 자신이 믿는 단단한 무엇을 위해
 목숨을 걸 수 있는 사람과 그럴 수 없는 사람이 있다
 말이 많은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이 있다
 짜장면을 좋아하는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이 있다
 테니스에 미친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이 있다
 유에프오가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이 있다
 술을 좋아하는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이 있다

- 중략 -

사람들을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다고 믿는 사람과 그렇지 않
 은 사람이 있다

- ① 편견(偏見) ② 불화(不和)
 ③ 오해(誤解) ④ 독선(獨善)

[문제 분석]

출제 영역 || 기타 서울시 유형
 출제 빈도 || ★★★
 정답 || ①

[문제 해설]

- 이희종의 <편견>입니다.
- ① [O] '편견(偏見)'은 '공정하지 못하고 한쪽으로 치우친 생각'을 의미합니다. 시의 내용은 '~한 사람과 ~지 않은 사람'으로 양분하여 한쪽으로 생각이 치우친 사람들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편견(偏見)'이 제목으로 적절합니다.
- ② [X] '불화(不和)'는 '서로 화합하지 못할. 또는 서로 사이 좋게 지내지 못할'을 의미합니다.
- ③ [X] '오해(誤解)'는 '그릇되게 해석하거나 뜻을 잘못 앎. 또는 그런 해석이나 이해'를 의미합니다.
- ④ [X] '독선(獨善)'은 '자기 혼자만이 옳다고 믿고 행동하는 일'을 의미합니다.

4. 서로 의미가 유사한 속담과 한자성어를 짝지은 것이다. 관련이 없는 것끼리 묶은 것은?

- ① 원님 덕에 나팔 분다 - 狐假虎威
 ② 소 잃고 외양간 고친다 - 晚時之歎
 ③ 언 발에 오줌 누기 - 雪上加霜
 ④ 낫 놓고 기역자도 모른다 - 目不識丁

[문제 분석]

출제 영역 || 한자 성어 + 속담
 출제 빈도 || ★★★★★
 정답 || ③

[문제 해설]

- ① [X] '원님 덕에 나팔 나팔 분다'는 사또와 동행한 덕분에 나팔 불고 요란히 맞아 주는 호화로운 대접을 받는다는 뜻으로, 남의 덕으로 당치도 아니한 행세를 하게 되거나 그런 대접을 받고 우쭐대는 모양을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입니다.
 狐假虎威(여우 호, 거짓 가, 범 호, 위엄 위)는 '남의 권세를 빌려 위세를 부림'을 의미합니다.
- ② [X] '소 잃고 외양간 고친다'는 소를 도둑맞은 다음에서야 빈 외양간의 허물어진 데를 고치느라 수선을 떠난다는 뜻으로, 일이 이미 잘못된 뒤에는 손을 써도 소용이 없음을 비꼬는 말입니다.
 晚時之歎(늦을 만, 때 시, 갈 지, 탄식할 탄)은 시기에 늦어 기회를 놓쳤음을 안타까워하는 탄식을 의미합니다.
- ③ [O] '언 발에 오줌 누기'는 '언 발을 녹이려고 오줌을 누어 봤자 효력이 별로 없다는 뜻으로, 임시변통은 될지 모르나 그 효력이 오래가지 못할 뿐만 아니라 결국에는 사태가 더 나빠짐을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입니다.
 雪上加霜(눈 설, 위 상, 더할 가, 서리 상)은 '눈 위에 서리가 덮인다'는 뜻으로, 난처한 일이나 불행한 일이 잇따라 일어남을 이르는 말입니다.
- ④ [X] '낫 놓고 기역자도 모른다'는 기역 자 모양으로 생긴 낫을 보면서도 기역 자를 모른다는 뜻으로, 아주 무식함을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입니다.

目不識丁(눈 목, 아닐 불, 알 식, 고무래 정)은 아주 간단한 글자인 '丁' 자를 보고도 그것이 '고무래'인 줄을 알지 못한다는 뜻으로, 아주 까막눈임을 이르는 말입니다.

5. <보기>의 밑줄 친 ㉠에 해당하는 글자가 아닌 것은?

<보기>

한글 중 초성자는 기본자, 가획자, 이체자로 구분된다.
 기본자는 조음 기관의 모양을 상형한 글자이다. ㉠가획자는 기본자에 획을 더한 것으로, 획을 더할 때마다 그 글자가 나타내는 소리의 세기는 세어진다는 특징이 있다. 이체자는 획을 더한 것은 가획자와 같지만 가획을 해도 소리의 세기가 세어지지 않는다는 차이가 있다.

① ㄹ ② ㄷ
 ③ ㅂ ④ ㅊ

[문제 분석]

출제 영역 || 훈민정음 제자 원리
 출제 빈도 || ★★★★★
 정답 || ①

[문제 해설]

- ① [O] 'ㄹ'은 설음(舌音) 'ㄴ'의 이체자입니다.
 ② [X] 'ㄷ'은 설음(舌音) 'ㄴ'의 가획자입니다.
 ③ [X] 'ㅂ'은 순음(唇音) 'ㅁ'의 가획자입니다.
 ④ [X] 'ㅊ'은 치음(齒音) 'ㅈ'의 가획자입니다.

기특 플러스 훈민정음 제자 원리/창제의 원리

- 초성 17자(자음): 기본자 5자 'ㄱ, ㄴ, ㄷ, ㄹ, ㅇ'은 발음 기관을 상형하였으며, 여기에 소리의 세기에 따라 획을 더해 가획자 9자를 만들었다. 그러나 이런 일반적인 제자 방식에서 벗어난 글자인 이체자 3자 'ㅇ, ㄹ, ㅅ'도 있었다.

오음(五音)	기본자	상형	가획자	이체자
아음(牙音)	ㄱ	象舌根閉喉之形 (상설근폐후지형) 혀뿌리가 목구멍을 막는 모양	ㅋ	ㆁ (옛이음)
어금닛소리				
설음(舌音)	ㄴ	象舌附上腭之形 (상설부상악지형) 혀가 윗잇몸에 닿은 모양	ㄷ, ㅌ	ㄹ
혓소리				
순음(唇音)	ㅁ	象口形(상구형) 입의 모양	ㅂ, ㅍ	
입술소리				
치음(齒音)	ㅈ	象齒形(상치형) 이의 모양	ㅊ, ㅌ	ㅅ (반치음)
잇소리				
후음(喉音)	ㅇ	象喉形(상후형) 목구멍의 모양	ㅎ, ㅎ	
목구멍소리				

- 중성 11자(모음): 기본자 'ㅏ, ㅑ, ㅣ' 세 글자를 하늘(天), 땅(地), 사람(人)의 모습을 본떠 만들고 초출자('ㅏ'가 한 번 쓰임)를 'ㅏ, ㅑ, ㅣ' 세 글자만 합성하여 만들고, 재출자('ㅏ'가 두 번 쓰임)는 초출자에 'ㅣ'를 합성하여 만들었다.

구분	제자 원리	내용
기본자	상형	ㅏ: 형지원상호천야 (形地圓象乎天也) - 하늘의 둥근 모양을 본뜬 ㅑ: 형지평상호지야 (形之平象乎地也) - 땅의 평평한 모양을 본뜬 ㅣ: 형지립상호인야 (形之立象乎人也) - 사람의 서 있는 모양을 본뜬
초출자	합성	ㅗ, ㅛ ㅜ, ㅠ
재출자		ㅝ, ㅞ ㅟ, ㅠ

- 종성부용초성(終聲復用初聲): 훈민정음에서, 종성의 글자를 별도로 만들지 아니하고 초성으로 쓰는 글자를 다시 사용한다는 종성의 제자 원리(制字原理)이다.

6. 외래어 표기 용례로 올바른 것은?

- ① dot - 닷
- ② parka - 파카
- ③ flat - 플랫
- ④ chorus - 코루스

[문제 분석]

출제 영역 || 외래어 표기법

출제 빈도 || ★★★★★

정답 || ②

[문제 해설]

- ① [X] '작고 둥그란 점, 작은 점, 점으로 된 표, 종지부, 소수점.'을 의미하는 'dot[dat]'는 '도트'로 적습니다. 닷(X), 닷(X)
- ② [O] '① 에스키모가 입는, 후드가 달린 모피 옷, ② 후드가 달린 짧은 외투'를 의미하는 'parka[parka]'는 '파카'로 적습니다. 파카는 발음 기호로는 '파커'로 표기하는 것이 옳으나 이미 굳어진 외래어로 관용을 존중하므로 '파카'로 적습니다.
- ③ [X] 'f'는 'ㅍ'으로만 표기합니다. 짧은 모음 다음의 어말 무성 파열음([p], [t], [k])은 받침으로 적습니다. 따라서 '① 주로 속도 경기에서, 선수가 기록한 시간이 초(秒) 아래에 우수리가 붙지 아니하는 일, ② 내림표, ③ 한 가족을 같은 층에 배치하는 형식의 집합 주택.'을 의미하는 'flat[flæt]'은 '플랫'으로 적습니다.
- ④ [X] 'u'는 '우'로 소리납니다. 따라서 '① 합창, ② 합창단, ③ 합창대, ④ 포크 송이나 대중가요에서 반복되는 부분.'을 의미하는 'chorus[kɔ:ɾə:]'는 '코러스'로 적습니다.

7. <보기>의 ㉠~㉣을 현행 로마자 표기법에 따라 표기한 것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보기>

- | | |
|-------|-------|
| ㉠ 다락골 | ㉡ 국망봉 |
| ㉢ 낭림산 | ㉣ 한라산 |

- ① ㉠ - Dalakgol
- ② ㉡ - Gukmangbong
- ③ ㉢ - Nanggrimsan
- ④ ㉣ - Hallasan

[문제 분석]

출제 영역 || 로마자 표기법

출제 빈도 || ★★★★★

정답 || ④

[문제 해설]

- ① [X] 다락골[다락골], Dalakgol(X) → Darakgol(O): 된소리되기는 표기에 반영하지 않습니다. 또한 '㉠'은 모음 앞에서는 'r'로, 자음 앞이나 어말에서는 'l'로 적습니다. 모음 앞의 '㉠'이므로 'r'로 적어야 합니다.
- ② [X] 국망봉[국망봉], Gukmangbong(X) → Gungmangbong(O): 자음 사이에서 동화 작용이 일어나는 경우 변화의 결과에 따라 적습니다. 받침 'ㄱ, ㄷ, ㅂ'은 'ㄴ, ㄹ' 앞에서 [o, ɥ, ɔ]으로 발음합니다(「표준 발음법」 제18항). 따라서 비음화를 반영하여 적어야 합니다.
- ③ [X] 낭림산[낭:님산], Nanggrimsan(X) → Nangnimsan[낭:님산](O): 자음 사이에서 동화 작용이 일어나는 경우 변화의 결과에 따라 적습니다. 「표준 발음법」 제19항에 따르면 한자어 받침 'ㄱ, ㄷ, ㅂ, ㅇ' 뒤에 연결되는 'ㄹ'은 [ɥ]으로 발음합니다. 따라서 비음화를 반영하여 적어야 합니다.
- ④ [O] '한라산[할라산]'은 유음화를 반영하며, '㉣'은 'll'로 표기하므로 'Hallasan'으로 표기합니다.

8. <보기>는 황진이가 지은 시조이다. 빈칸에 들어갈 알맞은 낱말 끼리 짝지은 것은?

<보기>

冬至[㉠] 돌 지나긴 밤을 한 (㉡)를 버혀 내어
(㉢) 니불 아래 서리서리 너헛다가
어론 님 오신 날 밤이여든 구뵈구뵈 퍼리라.

- | | |
|------|----|
| ㉠ | ㉡ |
| ① 허리 | 春風 |
| ② 허리 | 秋風 |
| ③ 머리 | 春風 |
| ④ 머리 | 秋風 |

[문제 분석]

출제 영역 || 시조

출제 빈도 || ★★★★★

정답 || ①

[문제 해설]

<보기>는 임을 향한 그리움과 사랑을 표현한 황진이의 시조입니다.

- ① [O] ㉠은 '허리'가 ㉡은 '春風'이 들어갑니다. '동짓달 지나긴 밤을 한 허리를 베어 내어 춘풍 이불 아래 서리서리 넣었다가'의 표현에서 시간적 개념인 '밤'을 '잘라 내어 이불에 넣는' 공간적 개념으로 구체화하여 제시하고 있으며, 이를 다시 '동짓달 지나긴 밤'과 대조되는 계절인 '春風 니불' 아래 넣었다가 '어론님 오신날 밤(정든 임이 오신 날 밤)'에 구뵈구뵈(곱이곱이: 여러 곱이로 구부러지는 모양) 펴는 것으로 해석됩니다.

9. 다음 중 띄어쓰기가 옳지 않은 것은?

- ① 불이 꺼져 간다.
- ② 그 사람은 잘 아는척한다.
- ③ 강물에 떠내려 가 버렸다.
- ④ 그가 올 듯도 하다.

[문제 분석]

출제 영역 || 띄어쓰기

출제 빈도 || ★★★★★

정답 || ③

[문제 해설]

- ① [O] 본용언과 보조 용언은 띄어 씀을 원칙으로 하되, 본용언과 보조 용언이 연결 어미 '-아/-어'로 연결될 때는 붙여 씀을 허용합니다. 따라서 '꺼져 간다'는 '꺼져간다'와 같이 붙여 쓸 수 있습니다.
- ② [O] '아는 척한다'는 본용언과 보조 용언의 관계이므로 띄어 쓰는 것이 원칙이고, '아는 척한다'와 같이 붙여 쓰는 것도 허용합니다.
- ③ [X] '떠내려가다'는 '물 위에 떠서 물결을 따라 옮겨 가다'라는 뜻의 한 단어이므로 붙여 써야 합니다. 또한 본용언과 보조용언은 원칙적으로 띄어 쓰지만 앞말이 합성 동사인 경우에는 항상 띄어 써야 하므로 '떠내려가▽버렸다'와 같이 써야 옳습니다.
- ④ [O] '올 듯하다'는 본용언과 보조 용언의 관계이므로 띄어 쓰는 것이 원칙이고 '올듯하다'와 같이 붙여 쓰는 것도 허용합니다. 그러나 '듯하다'에 '도'와 같은 보조사가 삽입되는 경우에는 '듯도 하다'의 형태로, 의존 명사 '듯' 뒤에 보조사 '도'가 붙고, 이어서 용언 '하다'가 오는 형태입니다. 따라서 '올 듯도 하다'와 같이 띄어 써야 합니다.

기특 플러스 본용언과 보조 용언의 띄어쓰기

보조 용언은 띄어 씀을 원칙으로 하되, 경우에 따라 붙여 씀도 허용한다.

원칙	허용
불이 꺼져 간다.	불이 꺼져간다.
내 힘으로 막아 낸다.	내 힘으로 막아낸다.
어머니를 도와 드린다.	어머니를 도와드린다.
그릇을 깨뜨려 버렸다.	그릇을 깨뜨려버렸다.
비가 올 듯하다.	비가 올듯하다.

그 일은 할 만하다.	그 일은 할만하다.
일이 될 법하다.	일이 될법하다.
비가 올 성싶다.	비가 올성싶다.
잘 아는 척한다.	잘 아는척한다.

예외) ① 보조 용언의 앞말에 조사가 붙거나 앞말이 합성 동사인 경우, 또는 중간에 조사가 들어갈 경우에는 띄어 쓴다.

예 그가 올[㉠]듯도[㉡]하다. / 아는[㉢]체를[㉣]한다.

떠내려가[㉤]버렸다. / 덩벼들어[㉥]보아라.

교양서적을 읽어도[㉦] 봐야 하죠. / 잘도 놀아만[㉧]나는구나!

② 보조 용언이 거듭되는 경우에는 앞의 보조 용언만 붙여 쓸 수 있다.

원칙	허용
기억해 [㉨] 들 [㉩] 만하다.	기억해들 [㉩] 만하다.
되어 [㉪] 가는 [㉫] 듯하다.	되어가는 [㉫] 듯하다.

③ ‘-어지다’, ‘-어하다’는 보조 용언이지만 접미사적 성격이 강하므로 붙여 쓴다.

예 뜻이 이루어진다. / 꽃을 예뻐한다.

10. 맞춤법 사용이 옳바르지 않은 것으로만 묶인 것은?

- ① 웃어른, 사흔날, 베갯잇
- ② 널리리, 남존녀비, 혜택
- ③ 적잖은, 생각건대, 하마터면
- ④ 홀몸, 밋밋하다, 선율

[문제 분석]

출제 영역 || 표준어 + 사이시옷의 표기 + 두음법칙

출제 빈도 || ★★★★★

정답 || ②

[문제 해설]

① [X] 발음 변화에 따른 표준어 규정 12항에 따라, ‘아래, 위’의 대립이 없는 단어는 ‘웃-’으로 발음되는 형태를 표준어로 삼습니다. 따라서 ‘웃어른’은 옳은 표기입니다. 한글 맞춤법 제29항에 따라, 끝소리가 ‘ㄹ’인 말과 탄 말이 어울릴 적에 ‘ㄹ’ 소리가 ‘ㄷ’ 소리로 나는 것은 ‘ㄷ’으로 적습니다. 따라서 ‘사흔날’은 옳은 표기입니다. 한글 맞춤법 제30항에 따라, 순우리말로 된 합성어에서 뒷말의 첫소리 모음 앞에서 ‘ㄴ’ 소리가 덧나는 경우 사이시옷을 받치어 적습니다. 따라서 ‘베갯잇’은 옳은 표기입니다.

② [O] 한글 맞춤법 9항에 따라, 자음을 첫소리로 가지고 있는 음절의 ‘ㄴ’은 ‘ㄴ’로 소리 나는 경우가 있더라도 ‘ㄴ’으로 적습니다. 따라서 ‘널리리’로 쓰는 것이 옳습니다. 한글 맞춤법 제10항에 따라, 접두사처럼 쓰이는 한자가 붙어서 된 말이나 합성어에서, 뒷말의 첫소리가 ‘ㄴ’ 소리로 나더라도 두음 법칙에 따라 적습니다. 따라서 ‘남존여비’로 적어야 합니다. 한글 맞춤법 제8항에 따라, 계, 레, 메, 폐, 헤의 ‘ㄷ’은 ‘ㄱ’으로 소리 나는 경우가 있더라도 ‘ㄱ’으로 적습니다. 따라서 ‘혜택’으로 쓰는 것이 옳습니다.

③ [X] 한글 맞춤법 제39항에 따라, 어미 ‘-지’ 뒤에 ‘않-’이 어울려 ‘-잖-’이 될 적에는 준 대로 적습니다. 따라서 ‘적잖은’은 옳은 표기입니다. 한글 맞춤법 제40항에 따라, 어간의 끝음절 ‘하’가 아주 줄 적에는 준 대로 적습니다. 따라서 ‘생각건대’는 옳은 표기입니다. 한글 맞춤법 제40항에 따라, ‘하마터면’은 소리대로 적는 부사입니다.

④ [X] ‘홀’은 ‘한 겹으로 된, 혼자인’이란 뜻의 접두사입니다. 따라서 접두사 ‘홀’이 붙은 파생어 ‘홀몸’은 ‘아이를 배지 않은 몸’이라는 뜻으로서 ‘홀몸’은 옳은 표기입니다. 한글 맞춤법 제13항에 따라, 한 단어 안에서 같은 음절이나 비슷한 음절이 겹쳐 나는 부분은 같은 글자로 적습니다. 따라서 ‘밋밋하다’는 옳은 표기입니다. 한글 맞춤법 제11항에 따라, 모음이나 ‘ㄴ’ 받침 뒤에 이어지는 ‘열, 룰’은 ‘열, 율’로 적습니다. 따라서 ‘선율’은 옳은 표기입니다.

11. <보기>의 설명에 따라 옳바르게 표기된 경우가 아닌 것은?

<보기>

- 어간의 끝음절 ‘하’의 ‘ㄸ’가 줄고 ‘ㅎ’이 다음 음절의 첫소리와 어울려 거센소리로 될 적에는 거센소리로 적는다.
- 어간의 끝음절 ‘하’가 아주 줄 적에는 준 대로 적는다.

- ① 섭섭지 ② 혼타
- ③ 익숙치 ④ 정결타

[문제 분석]

출제 영역 || 본말과 준말

출제 빈도 || ★★★★★

정답 || ③

[문제 해설]

한글 맞춤법 제40항에 대한 내용입니다.

- ① [O] ‘섭섭하지’에서 어간의 끝음절 ‘하’가 아주 줄 적에는 준 대로 적습니다. 따라서 ‘섭섭지’가 옳은 표기입니다.
- ② [O] ‘혼타다’에서 어간의 끝음절 ‘하’의 ‘ㄸ’가 줄고 ‘ㅎ’이 다음 음절의 첫소리와 어울려 거센소리로 될 적에는 거센소리로 적습니다. 따라서 ‘혼타’가 옳은 표기입니다.
- ③ [X] ‘익숙하지’에서 어간의 끝음절 ‘하’가 아주 줄 적에는 준 대로 적습니다. 따라서 ‘익숙지’가 옳은 표기입니다.
- ④ [O] ‘정결하다’에서 어간의 끝음절 ‘하’의 ‘ㄸ’가 줄고 ‘ㅎ’이 다음 음절의 첫소리와 어울려 거센소리로 될 적에는 거센소리로 적습니다. 따라서 ‘정결타’가 옳은 표기입니다.

12. <보기 1>의 사례와 <보기 2>의 언어 특성이 가장 잘못 짝지어진 것은?

<보기 1>

- (가) ‘방송(放送)’은 ‘석방’에서 ‘보도’로 의미가 변하였다.
- (나) ‘밥’이라는 의미의 말소리 [밥]을 내 마음대로 [법]으로 바꾸면 다른 사람들은 ‘밥’이라는 의미로 이해할 수 없다.
- (다) ‘종이가 찢어졌어’라는 말을 배운 아이는 ‘책이 찢어졌어’라는 새로운 문장을 만들어 낸다.
- (라) ‘오늘’이라는 의미를 가진 말을 한국어에서는 ‘오늘[오늘]’, 영어에서는 ‘today(투데이)’라고 한다.

<보기 2>

- ㉠ 규칙성 ㉡ 역사성
- ㉢ 창조성 ㉣ 사회성

- ① (가) - ㉠ ② (나) - ㉡
- ③ (다) - ㉢ ④ (라) - ㉣

[문제 분석]

출제 영역 || 국어의 특성

출제 빈도 || ★★

정답 || ④

[문제 해설]

- ① [O] ‘언어의 역사성’은 언어는 하나의 사회적 약속이지만, 시간의 흐름에 따라 언어가 신생·성장·사멸하는 변화를 겪을 수 있는 특성을 말합니다. (가) ‘방송(放送)’은 ‘석방’에서 ‘보도’로 의미가 변하였다는 ㉡ 역사성과 관련이 있습니다.
- ② [O] ‘언어의 사회성’은 사회적 약속으로 수용되면 이를 개인이 마음대로 바꿀 수 없는 특성을 말합니다. (나) ‘밥’이라는 의미의 말소리 [밥]을 내 마음대로 [법]으로 바꾸면 다른 사람들은 ‘밥’이라는 의미로 이해할 수 없다는 ㉢ 사회성과 관련이 있습니다.
- ③ [O] ‘언어의 창조성’은 한정된 언어를 활용하여 무한한 문장을 창조해 내고 상상의 세계와 추상적인 관념까지 표현할 수 있음을 말합니다. (다) ‘종이가 찢어졌어’라는 말을 배운 아이는 ‘책이 찢어졌어’라는 새로운 문장을 만들어 낸다는 ㉣ 창조성과 관련이 있습니다.
- ④ [X] ‘언어의 자의성’은 소리와 의미 사이에 어떤 필연적인 관계가 없고 자의적(혹

은 임의적)인 관계가 있는 것을 말합니다. ㉠ ‘오늘’이라는 의미를 가진 말을 한국어에서는 ‘오늘[오늘]’, 영어에서는 ‘today(투데이)’라고 한다는 ‘언어의 자의성’과 관련이 있습니다. ㉡ 규칙성’은 언어의 요소들이 나름대로 구조적인 체계를 이루고 있는 특성을 말하며(㉢ 국어의 ‘주어-목적어-서술어’ 어순) ㉣와 관련이 없는 언어의 특성입니다.

기특 플러스 언어의 기호적 특성

1. 자의성(恣意性)

소리와 의미 사이에는 어떤 필연적인 관계가 없고, 말소리와 뜻 사이의 관계는 자의적(혹은 임의적)이다.

- 예 • 코를 ‘코’라 하고 가슴을 ‘가슴’이라 하는 것은 우연적인 결합이다.
- ‘달’을 영어에서는 [mu:n], 스페인어에서는 [luna]라고 한다. 동일한 한 사물이나 개념이 언어마다 다른 소리로 나타나는 것이다.

2. 도상성(圖像性)

자의성과 대립되는 개념으로 언어의 구조와 의미 간에 유사성이 존재함을 말한다.

(1) 양적 도상성: 개념의 복잡성 정도가 언어적 재료의 양과 비례하는 경우를 말한다.

예 단수와 복수(아이:아이들)

(2) 순서적 도상성: 시간적 순서나 우선성의 정도가 언어 구조에 반영된 경우이다.

예 시간적 순서[어녹다, 문답(問答), 입퇴원, 오르내리다]

(3) 거리적 도상성: 개념적 거리와 언어적 거리가 비례 관계를 형성하는 것을 말한다.

예 개념적 거리(아버지:할아버지:외할아버지)

3. 사회성(社會性)/불역성(不易性)

언어는 사회적 약속이며,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사용하니까 인정된 것이다.

예 사람들이 ‘짜장면’이라고 많이 쓰니까, ‘자장면’과 더불어 ‘짜장면’도 표준어로 인정되었다.

※ 사회성의 예 ‘너무’

《표준국어대사전》에서는 ‘너무’라는 단어를 ‘일정한 정도나 한계에 지나치게’라는 의미로 풀이해 두고 부정적인 의미로 쓰도록 제한해 왔다(예 너무 늦다). 그런데 2015년에 ‘일정한 정도나 한계를 훨씬 넘어서는 상태’라고 수정하여 긍정적인 의미에도 쓸 수 있게 되었다(예 너무 좋다).

4. 역사성(歷史性)

언어는 시간의 흐름에 따라 생성, 변화, 소멸한다.

- 예 • ‘인터넷’, ‘네티즌(‘누리꾼’으로 순화)’이라는 말이 새롭게 만들어졌다.(생성)
- ‘어리다’는 ‘어리석다’는 의미에서 ‘나이가 적다’는 의미로 바뀌었다.(변화)
- ‘즈믄’과 ‘온’은 각각 ‘천(千)’과 ‘백(百)’을 뜻하는 옛말로 오늘날에는 쓰지 않는다.(소멸)

5. 창조성(創造性)/개방성(開放性)

한정된 언어를 가지고 무한한 문장을 창조해 내고 상상의 세계와 추상적인 관념까지 표현할 수 있는 개방성이 있다.

예 인간의 언어는 ‘사랑’, ‘평화’ 등의 추상적인 관념까지 자유롭게 표현한다.

6. 추상성(抽象性)

구체적인 대상들로부터 공통의 속성만을 추출하는 추상화 과정을 통하여 개념이 형성된다.

예 사과, 감, 바나나 등을 과일이라고 부른다.

7. 분절성(分節性)

언어는 연속적으로 이루어져 있는 세계를 불연속적인 것으로 끊어서 표현한다.

- 예 • 무지개 색깔 사이의 경계를 찾아볼 수 없는데도 우리는 무지개 색깔이 일곱 가지라고 말한다.
- 하루를 24시간으로 끊어서 표현하거나, 사람의 신체를 머리, 목, 가슴 등으로 분절하여 표현한다.

※ 언어의 규칙성(規則性)과 체계성(體系性)

언어는 일정한 규칙을 바탕으로 운용되는 하나의 체계이다.

예 국어는 언어 유형 중 ‘주어-목적어-동사’의 어순을 갖는 SOV형 언어이다.

13. <보기>의 밑줄 친 시어를 현대어로 옮길 때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보기>

매운 계절의 ㉠ 챗죽에 갈겨
㉡ 마침내 북방으로 휩쓸려오다
하늘도 그만 지쳐 끝난 고원
서리빨 칼날진 ㉢ 그우에서다
어데다 무릎을 꾸러야하나?
한발 ㉣ 재겨디딜 곳조차 없다
이러매 눈감아 생각해볼밖에
겨울은 강철로된 무지갯가보다

- 이육사, 「절정」-

- ① ㉠ : 채찍
- ② ㉡ : 마침내
- ③ ㉢ : 그 위
- ④ ㉣ : 재겨 디딜

[문제 분석]

출제 영역 || 주요 시 작품의 이해

출제 빈도 || ★★★★★

정답 || ④

[문제 해설]

이육사의 <절정>은 1940년 《문장》에 발표한 시로서, 민족 현실의 암담함을 노래하였습니다.

④ [X] ㉣ ‘재겨디딜’에서 ‘발끝이나 발뒤꿈치만으로 땅을 디디다.’의 의미로 표준어는 ‘제겨디디다’입니다. 따라서 “한발 제겨디딜 곳조차 없다”와 같이 현대어로 옮겨야 합니다.

14. 밑줄 친 부분의 품사가 다른 하나는?

- ① 옷 색깔이 아주 밝구나!
- ② 이 분야는 전망이 아주 밝단다.
- ③ 내일 날이 밝는 대로 떠나겠다.
- ④ 그는 예의가 밝은 사람이다.

[문제 분석]

출제 영역 || 품사의 구별

출제 빈도 || ★★★★★

정답 || ③

[문제 해설]

- ① [X] ‘밝다’는 ‘빛깔의 느낌이 환하고 산뜻하다.’는 의미의 형용사로 쓰였습니다.
- ② [X] ‘밝다’는 ‘예측되는 미래 상황이 긍정적이고 좋다.’는 의미의 형용사로 쓰였습니다.
- ③ [O] ‘밝다’는 선택지에서와 같이 ‘밤이 지나고 환해지며 새날이 오다.’라는 의미일 때만 동사로 쓰입니다.
- ④ [X] ‘밝다’는 ‘생각이나 태도가 분명하고 바르다.’는 의미의 형용사로 쓰였습니다.

15. <보기>의 () 안에 들어갈 가장 알맞은 말을 차례로 나열한 것은?

<보기>

지난여름 작가 회의에서 북한 동포 돕기 시 낭송회를 한 적이 있다. 시인들만 참석하는 줄 알았더니 각계 원로들도 자기가 평소에 애송하던 시를 낭송하는 순서가 있다고, 나한테도 한 편 낭송해 달라고 했다. 내가 (㉠) 소리를 듣게 된 것이 당혹스러웠지만, 북한 돕기라는 데 핑계를 둘러대고 빠질 만큼 빠질뻔하지는 못했나 보다. 하겠다고 했다. 그러나 거역할 수 없는 명분보다 더 중요한 것은 (㉡) 아니었을까. 그 무렵 나는 김용택의 ‘그 여자네 집’이라는 시에 사로잡혀 있었다. 김용택은 내가 좋아하는 시인 중의 한 사람일 뿐 가장 좋아하는 시인이라고는 말 못 하겠다. 마찬가지로 ‘그 여자네 집’이 그의 많은 시 중 빼어난 시인지 아닌지도 잘 모르겠다.

㉠

㉡

- | | |
|---------|-------------------------|
| ① 원로 | 낭송하고 싶은 시가 있었다는 게 |
| ② 아쉬운 | 서로가 만족하게 될 실리가 |
| ③ 시인 | 잠깐의 수고로 동포를 도울 수 있다는 것이 |
| ④ 입에 발린 | 원로들에 대한 예의가 |

[문제 분석]

출제 영역 || 주요 소설 작품의 이해 + 생략된 내용 추리하기

출제 빈도 || ★★★★★

정답 || ①

[문제 해설]

<보기>는 박완서의 단편 소설 <그 여자네 집>이며, ‘개인의 아픔과 상처를 통해 본 민족사적 비극과 불행’을 주제로 하고 있는 액자 소설입니다. ‘나’는 김용택의 시 <그 여자네 집>을 통해 곱단이와 만득이의 옛날이야기(내화)를 떠올리게 됩니다(외화).

- ① [O] 본문의 ‘~각계 원로들도 자기가 평소에 애송하던 시를 낭송하는 순서가 있다고, 나한테도 한 편 낭송해 달라고 했다. 내가 (㉠) 소리를 듣게 된 것이 당혹스러웠지만,~’으로 보아 ㉠에는 ‘원로’가 들어가는 것이 적절합니다. ‘그러나 거역할 수 없는 명분보다 더 중요한 것은 (㉡) 아니었을까. 그 무렵 나는 김용택의 ‘그 여자네 집’이라는 시에 사로잡혀 있었다.’를 보아 ㉡에는 ‘낭송하고 싶은 시가 있었다는 게’가 들어가는 것이 적절합니다.

16. <보기>의 밑줄 친 어휘들 가운데 문맥적 의미가 다른 하나는?

<보기>

불문곡직하는 직설은 사람을 찌른다. 깜짝 놀라게 해서 제압하는 방식이다. 거기 비해 완곡함은 땀을 들이면서 에두른다. 듣고 읽는 이가 비켜갈 틈을 준다. 그렇다고 완곡함이 곡필인 것도 아니다. 잘못된 길로 접어들도록 하는 게 아니라 화자와 독자의 교행이 이루어지는 공간을 준다. 곱씹어볼 말이 사라지고 상상의 여지를 박탈하는 글이 군림하는 세상은 살풍경하다. 말과 글이 세상을 따라 갈진대 세상을 갈아엎지 않고 말과 글이 세상과 함께 아름답기는 난망한 일인가. 아마 아닐 것이다. 막힐수록 옛것을 더듬으라고 했다. 물태와 인정이 극으로 나뉘는 세상에서 다산은 선인들이 왜 산을 바라보며 즐기되 그 흥취의 반을 항상 남겨두는지 궁금했다. 그는 미인을 만났던 사람이 적어놓은 글에서 그 까닭을 발견했다. 그가 본 글은 이러했다. ‘얼굴은 아름다웠으나 그 자태는 기록하지 않았다.’

- | | |
|------|------|
| ① 틈 | ② 공간 |
| ③ 여지 | ④ 세상 |

[문제 분석]

출제 영역 || 수필의 이해 + 단어 및 어구의 문맥적 의미 파악하기

출제 빈도 || ★★★

정답 || ④

[문제 해설]

제시된 작품은 손철주의 수필, <꽃 피는 삶에 홀리다>입니다.

- ①, ②, ③ [X] ‘틈’, ‘공간’, ‘여지’는 문맥상 사람을 깜짝 놀라게 해서 제압하는 ‘직설’과 땀을 들이면서 에두르는 ‘완곡함’ 중 ‘완곡함’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④ [O] ‘세상’은 물태와 인정이 극으로 나뉘는 세상을 의미하므로 ‘완곡함’과 관련되어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문맥적 의미가 ‘틈’, ‘공간’, ‘여지’와 다릅니다.

17. <보기>의 소설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보기>

“혼자 있기가 싫습니다.”라고 아저씨가 중얼거렸다.
“혼자 주무시는 게 편하실 거예요.” 안이 말했다.
우리는 복도에서 헤어져서 사환이 지적해 준, 나란히 붙은 방 세 개에 각각 한 사람씩 들어갔다.
“화투라도 사다가 놀시다.” 헤어지기 전에 내가 말했지만,
“난 아주 피곤합니다. 하시고 싶으면 두 분이냐 하세요.”라고 안은 말하고 나서 자기의 방으로 들어가 버렸다.
“나도 피곤해 죽겠습니다. 안녕히 주무세요.”라고 나는 아저씨에게 말하고 나서 내 방으로 들어갔다. 숙박계엔 거짓 이름, 거짓 주소, 거짓 나이, 거짓 직업을 쓰고 나서 사환이 가져다 놓은 자리끼를 마시고 나는 이불을 뒤집어썼다. 나는 꿈도 안 꾸고 잘 잤다.
다음날 아침 일찍이 안이 나를 깨웠다.

- ① 물화된 도시의 삶이 만든 비정함, 절망감, 권태 등이 바탕에 깔려 있다.
② 주인공들은 자기 지위나 이름을 버린 익명적 존재로 기호화되어 있다.
③ 잠은 현실을 초월한 삶에 대한 강렬한 동경을 환기하는 매개체다.
④ 화투는 절망과 권태를 견디는 의미 없는 놀이의 상징으로 볼 수 있다.

[문제 분석]

출제 영역 || 주요 소설 작품의 이해

출제 빈도 || ★★★★★

정답 || ③

[문제 해설]

김승옥의 <서울, 1964년 겨울>입니다. 1964년 어느 겨울밤, 서울을 배경으로 사회적 연대감과 동질성을 상실한 현대인의 소외를 중심 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 ① [O] ‘거짓 주소, 거짓 나이, 거짓 직업’을 기재하는 모습과 동숙하지는 사내의 제안을 차갑게 거절하는 ‘안’과 ‘나’의 모습에서 물화된 도시의 삶이 만든 비정함, 절망감, 권태 등이 바탕에 깔려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② [O] 이 소설에서 주인공들은 ‘나’, ‘아저씨(사내)’, ‘안’과 같이 표현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주인공들이 자기 지위나 이름을 버린 익명적 존재로 기호화되어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③ [X] ‘나는 이불을 뒤집어썼다. 나는 꿈도 안 꾸고 잘 잤다.’를 통해 ‘잠’은 ‘나’라는 인물이 혼자 있기 싫다는 아저씨의 요청을 거절하고 타인에게 무관심한 모습을 드러내는 소재로 쓰였음을 알 수 있습니다. 현실을 초월한 삶에 대한 강렬한 동경을 환기하는 매개체로 쓰이지 않았습니다.
④ [O] ‘화투’는 혼자 있기 싫다는 아저씨의 요청을 거절하고 절망과 권태를 견디는 의미 없는 놀이의 상징으로 쓰였다고 볼 수 있습니다.

18. <보기>의 밑줄 친 부분과 가장 가까운 내용을 담은 시조는?

<보기>

성현의 경전을 읽고 자기를 돌이켜 보아서 환히 이해
되지 않는 것이 있거든 모름지기 성현이 준 가르침이란
반드시 사람이 알 수 있고 행할 수도 있는 것에 대하여
말한 것임을 생각하라. 성현의 말과 나의 소견이 다르다면
이것은 내가 힘쓴 노력이 철저하지 못한 까닭이다.
성현이 어찌 알기 어렵고 행하기 어려운 것으로 나를
속이겠는가? 성현의 말을 더욱 믿어서 딴 생각이 없이
간절히 찾으면 장차 얻는 바가 있을 것이다.

- ① 십년 ㄴ온 칼이 갑리(匣裏)에 우노미라.
관산(關山)을 바라보며 때때로 묻져 보니
장부(丈夫)의 위국공훈(爲國功勳)을 어니 때에 드리울고.
- ② 구곡(九曲)은 어드미고 문산(文山)에 세모(歲暮)커다.
기암괴석(奇巖怪石)이 눈속에 못첫세라.
유인(遊人)은 오지 안이히고 불췌엿다 흐드라.
- ③ 강호(江湖)에 겨월이 드니 눈 기피 자히 남다.
샷갓 빗기 쓰고 누역으로 오슬 삼아,
이 몸이 침지 아니힘음도 역군은(亦君恩)이샷다.
- ④ 고인(古人)도 날 못 보고 나도 고인 못 배.
고인을 못 봐도 녀든 길 알피 잇네.
녀든 길 알피 잇거든 아니 녀고 엇절고.

[문제 분석]

출제 영역 || 시조
출제 빈도 || ★★★★★
정답 || ④

[문제 해설]

- ① [X] 이순신의 시조로 나라를 구하겠다는 무인으로서의 결의가 잘 나타나 있는 시조입니다.
- ② [X] 이이의 시조 <고산구곡가> 중 일부로 자연 속에서 즐기는 아름다움에 대해 말하고 있습니다.
- ③ [X] 맹사성의 시조 <강호사시가> 중 일부로 자연을 즐기며 이를 가능하게 해준 임금의 은혜에 감사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 ④ [O] 이황의 시조 <도산십이곡> 중 제9곡으로 고인(古人)이 행하던 도리를 자신도 힘써 배우고 따르겠다는 의지를 밝히고 있습니다. 이는 학문 수양의 당위성을 말하는 것으로, 밑줄 친 '성현의 말을 더욱 믿어서 딴 생각이 없이 간절히 찾으면 장차 얻는 바가 있을 것이다'와 가장 가까운 내용입니다.

[현대어 풀이]

갈아온 칼이 칼집 속에서 울고 있구나.
관문을 바라보며 때때로 만져볼 뿐이니.
장부의 나라를 위한 큰 공훈을 어느 때나 청사(靑史)에 기록할까?
-이순신, 십년 가온 칼이-
아홉 번째 계곡은 어디인가? 문산에 한 해가 저무는구나
기이하게 생긴 바위와 돌이 눈 속에 묻혔구나
세상 사람들은 와보지도 않고 볼 것 없다 하더라
-이이, 고산구곡가 中-
강호에 겨월이 닳치니 쌓인 눈의 깊이가 한 자가 넘는다
샷갓을 비스듬히 쓰고 도롱이를 둘러 입어 덧옷을 삼으니
늙은 이 몸이 이렇듯 추위를 모르고 지내는 것도 역시 임금의 은혜이
시다
-맹사성, 강호사시가 中-
옛 어른도 나를 보지 못하고 나도 그들을 보지 못하네.
하지만 그들이 행하던 길은 지금도 가르침으로 남아 있네.
이렇듯 올바른 길이 우리 앞에 있는데 따르지 않고 어찌하겠는가?
-이황, 도산십이곡 中-

19. 밑줄 친 부분이 <보기>의 ㉠ '쇠항아리'와 의미가 통하는 시어로 가장 적절한 것은?

<보기>

누가 하늘을 보았다 하는가
누가 구름 한 송이 없이 맑은
하늘을 보았다 하는가.

내가 본 건, 먹구름
그걸 하늘로 알고
일생을 살아갔다.

내가 본 건, 지붕 덮은
㉠ 쇠항아리,
그걸 하늘로 알고
일생을 살아갔다.

닭아라, 사람들아
네 마음속 구름
찢어라, 사람들아,
네 머리 덮은 쇠항아리.

- 신동엽, 「누가 하늘을 보았다 하는가」 中-

- ① 조국아/한번도 우리는 우리의 심장/남의 발톱에 주어진 적/없었나니(「조국」 中)
- ② 아사달과 아사녀가/중립의 초례청 앞에 서서/부끄럼 빛내며/맞절할지니(「깍뎨기는 가라」 中)
- ③ 꽃피는 반도는/남에서 북쪽 끝까지/완충지대(「술을 많이 마시고 잔 어젯밤은」 中)
- ④ 마을 사람들은 되나 안 되나 쑥덕거렸다./봄은 발병났다커니/봄은 위독하다커니(「봄의 소식」 中)

[문제 분석]

출제 영역 || 시어의 의미
출제 빈도 || ★★★★★
정답 || ①

[문제 해설]

신동엽의 <누가 하늘을 보았다 하는가>이며, 구속과 억압의 현실을 극복하기 위한 의지를 주제로 하고 있습니다. ㉠ '쇠항아리'는 '지붕을 덮은 존재'이자 사람들이 '하늘로 알고 인생을 살아간 존재'로서 '억압과 구속', '부정적인 외부 세력', '진실을 가리는 거짓' 등 부정적인 의미를 가진 시어이며, 2연의 '먹구름'도 유사한 의미입니다.

- ① [O] '발톱'은 조국의 대립과 갈등을 야기하는 '억압과 구속', '부정적인 외부 세력'등을 의미하며 ㉠ '쇠항아리'와 같이 부정적인 의미를 가진 시어입니다.
- ② [X] '중립의 초례청'은 이념의 대립을 뛰어넘은 화합의 장으로, 긍정적인 의미를 가진 시어입니다.
- ③ [X] '완충지대'는 '꽃피는 반도'를 일컫는 것으로, 긍정적인 의미를 가진 시어입니다.
- ④ [X] '봄'은 마을 사람들의 걱정 대상이자 기다림의 대상으로, 긍정적인 의미를 가진 시어입니다.

20. 밑줄 친 부분의 발음이 현행 표준 발음법에서 표준 발음으로 인정되지 않는 것은? (단, ‘:’은 장모음 표시임.)
- ① 비가 많이 내려서 물난리가 났다. - 물난리[물랄리]
 - ② 그는 줄곧 신문만 읽고 있었다. - 신문[심문]
 - ③ 겨울에는 보리를 밟는다. - 밟는다[밤:는다]
 - ④ 날씨가 벌써 한여름과 같다. - 한여름[한너름]

[문제 분석]

출제 영역 || 음의 동화

출제 빈도 || ★★★

정답 || ②

[문제 해설]

- ① [X] 표준 발음법 제20항에 따라 ‘ㄴ’은 ‘ㄹ’의 앞이나 뒤에서 [ㄹ]로 발음해야 하므로 (유음화), 물난리[물랄리]는 표준 발음에 해당합니다.
- ② [O] ‘신문’의 표준 발음은 [신문]입니다. 표준 발음법 제21항은 표준 발음이 아닌 경우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조항에서 언급하는 자음 동화는 자음의 조음 위치가 같아지는 ‘연구개음화’와 ‘양순음화’와 같은 경우입니다. 이러한 조음 위치의 동화는 모두 필수적으로 일어나는 현상이 아니라 수의적으로 일어나는 현상이며, 표준 발음으로 인정하지도 않습니다. 따라서 중성의 자음은 원래의 조음 위치대로 발음해야 합니다.
- ③ [X] 표준 발음법 제10항에 따라 겹받침 ‘ㄱ’, ‘ㄴ’, ‘ㄷ’, ‘ㄹ’, ‘ㅂ’, ‘ㅅ’은 어말 또는 자음 앞에서 각각 [ㄱ, ㄴ, ㄷ, ㄹ, ㅂ, ㅅ]으로 발음합니다. 다만, ‘ㅃ’은 자음 앞에서 [ㅃ]으로 발음되므로, ‘밟는다’는 [밤:는다]가 되고 뒤에 오는 ‘ㄴ’에 의해 비음화를 거쳐 [밤:는다]가 표준 발음이 됩니다.
- ④ [X] 표준 발음법 제29항에 따르면 합성어 및 파생어에서, 앞 단어나 접두사의 끝이 자음이고 뒤 단어나 접미사의 첫음절이 ‘이, 야, 여, 요, 유’인 경우에는, ‘ㄴ’ 소리를 첨가하여 [니, 나, 너, 노, 뉴]로 발음합니다. ‘한여름’은 ‘한창인’의 뜻을 더하는 접두사 ‘한-’과 명사 ‘여름’이 결합된 파생어이므로 ‘ㄴ’를 첨가하여 [한너름]으로 발음합니다.